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㉒ 의식과 무의식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의 작용

눈[안근眼根]과 대상[안경眼境]이 만난다[촉]. '눈이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촉'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다.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또는 판단하려는) 인식 또는 분별의 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주관적 의식화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는 '집착'이 들러붙지 않은 상태다. 보고 있어도 보는 게 아니다.

쏜살같은 전개를 선수 치는 '반야'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풀'(김수영 시인)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알아차림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도의 전개를 일찌감치 끊을 수 있다. 연속적으로 덩어리지는 현상들의 전광석화 같은 상속(相續), '알아차림'은 그것보다 빠르게 일어나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6근과 6경의 만남[촉]이 유발하는 다양한 정신적 물리적 현상의 연계와 그것에의 휘말림을 예방할 수 있다.

알아차림과 거의 동시에 발사되는 반야[慧: 통찰지]로 인해, 조건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상속은 끊어진다. 업행(業行)이 멈추니 업식(業識)은 청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청정도(淸淨道: 청정으로 가는 길 또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알아차림을 못하면 자신이 지은 '습(習: 습관)'대로, 현상은 생겨나고 그것이 '있다'라는 착각(무명)이 일어난다. 결국 거기에 휘말려 행(行: 반응 또는 의도)을 일으키기를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업행은 '오염일로'이다.

정리하자면 "6근과 6경이 만나[촉]→6식이 생겨나 의식화되면→나와 대상[주객主客]이 생겨나고→여기에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며 일어난 자의식은 상온을 근거로) '좋다 또는 싫다'의 반응을 일으키고→그 반응에 (이미 일어난 동일시가) 다시 집착과 갈애가 불러일으키면→생각이 생각을 낳고 망상이 망상을 낳고 번뇌는 번뇌를 낳는 단계"까지 진행돼 버린다.

죽음과 재생, 그 과정상의 '마음의 상속'

아비담마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난 데에는 '17심찰나', 즉 '17번의 (조건적) 생멸이 일어나 상속된다'고 한다. 17심찰나는 "①과거의 무의식(바왕가)-②무의식(바왕가)의 동요-③무의식(바왕가)의 멈춤-④오문전향(다섯 감각의 문을 향함)-⑤오식(다섯 갈래의 의식)-⑥받아들임-⑦조사-⑧결정-⑨~⑮속행(자와나, 생각-촉진)-⑯, ⑰경험의 등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의 과정과 동일하다. 단, 죽을 때는 (심장이 약한 상태라) 15심찰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상의 전개를 낱낱이 꿰뚫어 보다니! 그저 놀랍다.



살아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의 찰나적 생멸과 그것의 상속'은 계속된다. ©강소연

글머리에 (눈과 대상이 만났을 때) 사례로 든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거의 무의식에서 ④오문전향까지는 일어났으나 의문전향(⑧결정)의 단계에서 '알아차림'이 들어가서 속행(⑨~⑮)이 부정업(不淨業)의 전개가 아닌, 청정업(淸淨業)의 전개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17심찰나 중 '결정'의 단계에서 반야(통찰지)가 작용해 '속행'은 '청정'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만약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질 때, '결정'의 순간에 반야가 일어난다면 윤회의 등급은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마음들과 그것의 기능들

오온(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受想行識)'이 다양한 마음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해당한다. 마음의 분류와 기능은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다. 〈유식(唯識)〉에서는 전5식·제6식(의식)·제7말라식·제8아뢰야식으로 구분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찟따·마노·샨냐·윈냐나 등으로 불린다. 깨달음의 마음도 빤야·쌈파쟈냐·삿띠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마음들로 나누어진다. 특히 마노(Mano, 의意)의 경우, 유식에서는 자아의식을 지칭하는 말나식의 어원인 마나스(Manas)와 연관된다. 이는 남자 또는 사람(또는 인류)이라는 뜻의 영어인 '맨(Man)'의 어원이기도 하다. 유식에서는 제7말나식을 뜻하지만, 아비담마에서는 그 역할이 사뭇 다르다. 마노(의意)는 (17심찰나의 과정에서) 오식의 앞뒤에서 연결을 시켜 주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 오식의 앞에서 오문전향의 기능을, 오식의 뒤에서는 의문전향의 바탕이 되는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의(意)'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 '식(識)'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무튼 요지는 우리가 막연히 마음 또는 의식과 무의식 등으로 부르는 개념(덩어리)은 반야로 인해 해체(분해)된다는 것이다. 의(意)와 식(識), 작용만 하는 마음, 과보의 마음, 바왕가, 죽음의 마음, 재생식, 마음과 마음 부수, 조건 마음의 유무 등으로 무수히 쪼개진다. '17심찰나 (또는 15심찰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 (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의 찰나적 생멸과 그것의 상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만이 관건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㉒ 동물 의약품

동물 약국 검색 후 품목 미리 확인

"여기 사람 약도 있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 보시죠?"
"아, 여기 동물 약국 아닌가요?"
"사람 약국입니다. 동물 약도 취급합니다."
"아, 강아지 약만 파는 곳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울산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 하루 최소 세 명 이상이 약국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 묻던 질문이다. 약국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취급 품목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물 의약품을 적어 놨고, 그중 동물 의약품 로고가 조금 눈에 잘 띄는 귀여운 강아지 모양이었을 뿐인데, 고객들은 동물 약국으로 오해를 하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A4 용지에 [사][람][약][도] [있][습][니][다]라고 한 글자씩 크게 인쇄해 약국 외부에 덕지덕지 붙여 버렸다. 인테리어적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이후 "사람 약도 있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는 보건소에 동물 약국 개설 신청을 해 허가를 받으면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분된 구역에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할 정도의 독립된 공간과 동물 약을 짓기 위한 조제 공간, 냉장고 등의 온도 조절장치, 약국 외부 간판에 '동물 약국' 명시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동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물 의약품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동물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크게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이 있다.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처방대상 의약품은 주사용 항생제와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와 예방 접종 백신을 비롯한 백신류가 있다. 이러한 처방대상 의약품은 동물 약국에서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약국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예방 접종 백신의 경우, 2022년 이전에는 동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한다.

동물용 항생제와 항균제도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지정되긴 했는데, '약국 개설자 예외조항'이 있어 입으로 먹이는 경구용 항생제와 바르는 연고 같은 외용 항생제는 처방전 없이도 동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백신·항생제 등 수의사 처방대상
기생충 약·영양제는 일반 의약품
일부 제품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이 제품들은 판매 기록 대상 의약품에 해당해 구매 시 판매일, 제품명, 판매량,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니 약국에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묻더라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으쓱해질 필요까진 없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심장사상충 약을 비롯한 구충제와 벼룩,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 구제약, 소화제, 피부 상처 치료제, 영양제 등이 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심장사상충 약과 벼룩,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 약이다. 심장사상충 약은 입으로 먹이는 경구용 제품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 모두 있는데, 경구용 제품은 알약으로 삼키거나 부숴서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 소고기나 닭고기 맛이 나서 맛있게 간식처럼 바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제품 등 종류가 몹시 다양해 원하는 제품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벼룩, 진드기와 같은 외부 기생충 약은 제품마다 기생충의 구제범위가 다르고, 한 달에 한 번 바르는 제품, 3개월에 한 번 먹이는 제품, 목걸이 형태로 걸고 다니는 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 적당할지 알아보고 상담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설사약, 지사제, 멀미약 같은 소화기계통 약이나 비타민이나 영양강장제 같은 영양보조제, 소독약이나 연고 같은 피부 상처 치료제 모두 동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요즘은 기억하기 쉽도록 '개토톱', '견옥고', '개시딘'처럼 센스 있고 위트 넘치는 이름의 동물 약이 출시되고 있으니 동물 약국에 가면 그 제품명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약국 안의 숨겨진 재미 중 하나일 것이다.

동물 약국이 늘고 취급하는 제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원하는 제품을 동물 약국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원하는 제품이나 궁금한 제품을 동물 약국에서 구매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OO동 동물 약국'을 검색한 뒤 그곳에 전화해 해당 제품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5년 기준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동네약국에 전화해 미리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필자가 보장컨대, 당장 약국에 찾는 제품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친절한 동네약국 약사님은 그 약을 별도로 주문해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